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72호 [루게 제23224호] 주체99(2010)년 9월 29일(수요일)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최대의 영광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수행에서 결정적전환이 일어나고있는 력사적시기에 소집된 조선로동당대표자회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하였다.

대표자회는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담아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장장 반세기에 걸치는 장구한 기간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혁명실천으로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끄시여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으며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 백전백승의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하였음을 내외에 엄숙히 선언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모시는 력사적인 시각 대표자회의 전체 참가자들은 끝없는 감격과 환희, 열화같은 호모의 정에 넘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면서 최대의 경의와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었다.

결출한 사상리론의 영재이시며 회세의 선군명장, 정치원로이신 김정일동지를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신것은 우리의 수백만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최대의 영광이고 행복이며 우리 조국과 민족의 대경사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한것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발전풍부화하시여 당과 혁명, 자주시대의 진로를 밝히는 위대한 지도사상을 마련해주시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우리 나라를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과학기술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을 철통같이 다지시고 선군혁명명도로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강성번영의 새시대를 펼쳐주시였으며 반제자주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의 표시이다.

그것은 또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로속하고 세련된 령도따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선군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뚜렷이 과시하는 일대 정치적사변으로 된다.

전체 회의참가자들은 주체혁명의 심장이시고 선군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모든 승리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당과 군대, 국가의 수위에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실현과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갈 혁명적열의에 충만되어있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며 선군으로 빛나는 우리 조국은 영원히 무궁번영할것이다.



조선로동당 대표자회 주석단

조선로동당 대표자회 진행

은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조선로동당대표자회가 9월 28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대표자회는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주체혁명위업의 전환적 국면이 열리고있는 력사적시기에 소집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강화발전시켜오신 우리 당은 지난 65성상 주체의 기치, 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 영광스러운 투쟁의 길을 걸어왔다.

오늘 조선로동당은 전당에 유일사상 체계와 유일적명도체계가 확고히 선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 선군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는 강위력한 항도적력량으로 위용 떨치고 있다.

조선로동당을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 로속하고 세련된 당,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어머니당으로 건설하시고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당은 자주시대의 혁명적당으로 높은 존엄과 권위를 지니고 있다.

조선로동당대표자회는 당의 령도밑에 모든 전선에서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끼기 위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 이 세차게 타번지고있는 격동적시기에 진행된것으로 하여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대표자회장은 주체혁명의 혁명적당,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고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로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우리 당을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 가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휩싸여 있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대표자회에 참석하시였다.

대표자회에는 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대표회, 각 도, 정치국대표회들에서 선거된 대표자들이 참가하였다.

당, 무력,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인민군인들, 과학, 교육, 보건, 문화예술, 출판보도부문 일군들이 대표자회에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력사상 처음으로 주체혁명의 혁명적당창건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고 우리 당을 백전백승의 강위력한 혁명의 참모부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추모하여 목상하였다.

대표자회에서는 김영남동지가 개회사를 하였다. 개회가 선언되자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주악되었다.

대표자회에서는 각 도대표자들의 대표협의회 위임에 의하여 최영림동지가 대표자회는 집행부를 선거하였다.

대표자회 집행부는 다음과 같다.

김정일동지

- 김영남동지, 최영림동지, 김영춘동지, 장성택동지, 리영호동지, 김정각동지, 전병호동지, 최대복동지, 양형섭동지, 홍석형동지, 김국대동지, 김기남동지, 백세봉동지, 우동측동지, 주규창동지

대표자회는 서기부를 선거하였다. 대표자회 서기부는 다음과 같다.

- 리영수동지, 강동윤동지, 장인권동지, 김명건동지, 전룡국동지

대표자회는 다음과 같은 의정을 결정하였다.

1.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할데 대하여
2. 조선로동당규약개정에 대하여
3. 조선로동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하였다. 인민군당조직대표인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리영호동지, 평양시당조직 대표인 김일성사회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 리용철동지, 자강도당조직대표인 조선직업총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현상주동지, 평안북도 당조직대표인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리명길동지, 평양시 당조직대표인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고등교육상 성자립동지가 토론하였다.

은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에 따라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하는 조선로동당대표자회 결정서가 낭독되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천제적인 사상리론적예지와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명도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신 크나큰 영광과 감격에 넘쳐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러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울리면서 열렬한 축하를 드렸다.

대표자회에서는 둘째 의정을 토의 하였다.

조선로동당규약개정에 대한 결정서가 채택되었다.

대표자회에서는 셋째 의정을 토의 하였다.

대표자회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담아 조선로동당의 창건자 이길로 당과 혁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걸출한 령도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리 당의 최고 지도기관에 영원히 모신다는 것을 선포하였다.

대표자회는 조선로동당 규약과 조선로동당 최고지도 기관 선거세칙에 따라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시였음을 선포하였다.

대표자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지도 기관을 선거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선거가 진행되었다.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후보자들이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으로 선거되었다.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선거가 진행되었다.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후보자들이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거되었다.

대표자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0년 9월전원회의 결정내용이 통보되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당중앙위원회 비서선거와 비서국 조직결과가 발표되었다.

당중앙군사위원회 조직결과가 발표되었다.

당중앙위원회 부장, 당중앙위원회 기관지 《로동신문》 책임주필 임명과 당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 선거결과가

발표되었다.

대표자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1차전원회의 결정내용이 통보되었다.

대표자회에서는 김영남동지가 폐회사를 하였다.

대표자회는 《인터나소날》노래 주악으로 끝났다.

당대표자회는 회세의 정치원로이시며 불세출의 선군명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더욱 빛내이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선군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혁명적 신념과 의지를 온 세상에 시위한 뜻깊은 계기로 되었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대표자회는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우리 당의 영원한 수령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로속하고 세련된 령도따라 강성대국 건설과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기어 이룩하고야말 천만민민의 드립없는 신념과 의지를 다시금 힘있게 파시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위 대 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할데 대한 결 정 서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 수행에서 결정적전환이 일어나고있는 역사적인 시기에 소집된 조선로동당대표자회는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를 반영하여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당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시는데는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을 더욱 강화하며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정치사변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김정일동지는 세상사람들이 칭송하듯이 현 세계에서 으뜸가는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정치가입니다.> 라고 교시하시였다.

수령의 혁명위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 특출한 정치실력과 비범한 령도풍모를 지닌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반세기 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과 김일성조선의 강성번영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혁명이 부단천 류폐없이 엄혹한 고난과 시련속에서 당과 인민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시여 조국과 민족, 시대와 인류앞에 쌓아올리신 업적은 세계정치사에 전무 후무한것이다.

우리 민족의 반만년역사에서 오늘처럼 나라의 존엄과 국력이 최상의 경지에 오른 때는 일찍이

없었다.

어버이수령님의 유산인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고 경제강국건설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업적은 김일성민족, 선군조선의 역사와 더불어 후손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오늘 우리 혁명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 밑에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을 전면적으로 실현 하는 높은 역사적발전단계에 들어섰다.

천리해안의 선전지명과 심오한 탐구로 주체 사상, 선군사상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나가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독창적인 사상리론은 우리 당과 혁명의 앞길을 밝히는 고귀한 지침으로, 온갖 시련과 난관을 이겨나가는 백전백승의 만능의 무기로 되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당의 전투적위력은 비상이 높아지고 있으며 조선로동당의 존엄과 권위는 온 세상에 힘있게 파시되고있다.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인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당과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을 깨뜨릴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사상도 뜻도 운명도 같이 하는 우리의 사상의지적동일체는 날을 따라 더욱 억세여지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독창적인 선군정치는 인민 군대를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하고 부강조국건설을 무력으로 굳건히 담보하는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더욱 강화하며 우리 조국을 그 어떤 원수도 감히 범접할수 없게 하는 필승의 보검이다.

최근년간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이룩된 승리와 성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압력과 제재속에서 선군의 기치높이 이룩한것으로 하여 더욱 빛나고 있다.

우리 인민은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속에 나라의 경제전반이 비약적인 발전단계에 들어서고 과학과 교육, 문학예술을 비롯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이 최첨단들과의 기세드높이 세계를 향하여 과감히 돌진하는 눈부신 현실을 통하여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로선과 전략은 가장 정당하고 과학적이며 장군님만 따르면 반드시 승리 한다는 철리를 심장깊이 새겨안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안아오신 6. 15 통일 시대의 역사적흐름은 민족의 지향이고 의지이며 조국통일3대헌장의 기치밑에 나아가는 우리 겨레의 힘찬 투쟁은 그 누구도 막을수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에 의하여 오늘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지위와 영향력은 비상이 높아지고있다.

제국주의의 악랄한 제재와 압살책동속에서도 우리 조국이 강성대국으로 비약해나가고 민족의 존엄이 최상의 경지에서 떨쳐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가 선택한 길이 천만번 정당하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그 어떤 역풍이 불어와도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신념으로 간직하고있으며 당의 사상과 로선을 신조로 체득하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자기가 선택한 길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것이며 영원히 주체의 한길로 나아갈것이다.

이번 당대표자회에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가 열렬히 표명 되었다.

본 당대표자회는 온 나라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범의를 반영하여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할것을 결정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당을 령도하시기에 우리 혁명의 앞길에 그 어떤 역경이 가로막아나선 다 해도 김정일동지의 당, 선군혁명의 향도적력량으로서의 조선로동당의 승리적진군은 계속될것이며 사회주의조선의 미래는 휘황찬란하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한 크나큰 영광과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역세계 싸워나가야 할것이다.

주제 99 (2010) 년 9월 28일

조선로동당대표자회 개회사

동지를!
오늘 우리는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역사적인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는 전체 대표자들과 온 나라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아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시며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추모하여 목상할것을 정중히 제의합니다.

동지를!
오늘 우리 혁명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 밑에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훈을 강력적 지침으로 하여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성스러운 투쟁을 벌려나가고있습니다.

우리 당은 급변하는 정세의 요구에 맞게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군대와 인민을 이끌어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강성대국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는 역사적 위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력사의 류폐없는 시련을 헤쳐오는 과정에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은 더욱 굳건히 다져졌습니니다.

존엄한 혁명의 불길속에서 우리 당은 권위있고 존엄 높은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우리 인민군대는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는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더욱 장성강화되었습니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새로운 혁명적대고조가 일어나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를 비롯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거대한 성과가 달성되었습니다.

당건설과 군건설,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이룩된 업적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사상과 세련된 령도, 자주적신념과 드센 배짱, 불굴의 의지의 빛나는 결실

입니다.
지금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조선로동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당에 맡기고있으며 당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역세계 투쟁하고있습니다.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수행에서 결정적전환이 일어나고있는 역사적시기에 조선로동당 최고지도기관선기를 위한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진행하는것은 우리 당을 더욱 강화하고 조국과 민족의 찬란한 미래를 열어나가는 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정치적사변으로 필것입니다.

이 미 진행한 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대표회, 도, 정치국 대표회들에서는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하며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전투장들에서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고 있는 군인들과 근로자들, 일꾼들이 조선로동당대표자회 대표로 선거되었습니다.
본 당대표자회에는 조선

로동당 조선인민군대표회, 도, 정치국대표회들에서 선거된 1, 657명의 대표자들과가운데서 1, 653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대표자수성을 보면 당일군대표 672명으로 40.6%, 군일대표 451명으로 27.2%, 국가행정경제일군대표 343명으로 20.7%, 과학, 교육, 보건, 문화예술, 출판보도 부문 일군대표 75명으로 4.5%, 현장에서 일하는 핵심당원대표 116명으로 7%이며 녀성대표는 149명입니다.

본 당대표자회에는 517명이 방적으로 참가하였습니다.
이번 당대표자회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드팀 없는 혁명적신념과 의지를 다시한번 힘있게 파시하는 역사적인 계기가 되리라고 기대하면서 조선로동당 대표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조선로동당대표자회 결정서

주제 99 (2010) 년 9월 28일

조선로동당규약개정에 대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이끄시는 조선로동당은 60여성상에 걸치는 장구한 기간 우리 혁명을 백전백승으로 조직령도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였다.

조선로동당규약은 우리 당이 이룩한 위대한 업적과 경험을 당건설과 당활동에 구현하며 당안에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철저히 실현하고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며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기능을 높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기 위한 당의 기본 규범이다.

역사적인 당 제6차대회에서 수정보충된 조선로동당규약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우리 당을 일심단결을 실현하고 높은 조직성과 규율성을 지닌 강위력한 전투대오로 강화발전시켜 우리 당이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빛나기 위한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수행에서 백전백승으로 조직령도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였다.

조선로동당규약은 우리 당이 이룩한 위대한 업적과 경험을 당건설과 당활동에 구현하며 당안에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철저히 실현하고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며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기능을 높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기 위한 당의 기본 규범이다.

역사적인 당 제6차대회에서 수정보충된 조선로동당규약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우리 당을 일심단결을 실현하고 높은 조직성과 규율성을 지닌 강위력한 전투대오로 강화발전시켜 우리 당이 인민대중

그 지위와 역할을 대하여 새롭게 규제 하였다.

조선로동당규약개정안은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당원의 의무와 각급 당조직들의 사업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보충하였으며 <당과 인민정권>, <당마크, 당기>장을 새로 내오고 인민정권과 청년동맹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하며 인민군대의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한 내용을 보충하였다.

조선로동당대표자회는 조선로동당 규약개정안이 전당과 온 사회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유일적 령도를 더욱 철저히 실현하여 우리 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적전진을 확고히 담보하리라고 확신하면서 당규약개정안을 조선로동당규약으로 채택할것을 결정한다.

조선로동당대표자회

조선로동당 규약 개정문서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시고 당과 혁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탁월한 령도자이시며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와 빛나는 혁명전통을 마련하시였으며 그에 토대하여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혁명적당건설로선과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시여 조선로동당을 사상의지적으로 통일단결되고 높은 조직성과 규율성을 지닌 강철의 당으로,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시여 조선로동당을 유일사상체제와 유일적령도체제가 확고히 선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로, 선군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는 로숙하고 세련된 향도적력량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자주시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의 새 역사를 창조하고 김일성조선의 부강발전과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영원히 높이 모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된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핵심부대, 전위부대이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을 당건설과 당활동의 출발점으로, 당의 조직사상적공고화의 기초로,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데서 지도적지침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며 당건설과 당활동의 초석으로 삼는다.
조선로동당은 로동자, 농민, 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그들가운데서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몸바쳐 싸우는 선진투사들로 조직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 근로인민대중의 대중적

당이다.
조선로동당은 조선민족과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한다.

조선로동당은 근로인민대중의 모든 정치조직들가운데서 가장 높은 형태의 정치조직이며 정치, 군사, 경제,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를 통일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사회의 령도적정치조직이며 혁명의 참모부이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복반부에서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

조선로동당은 당안에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고 당이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며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하는것을 당건설의 기본원칙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당과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그 위력을 높이 발양시켜나간다.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며 자본주의의 사상, 봉건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동적, 기회주의적사상조류들을 반대배격하며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원칙을 견지한다.

조선로동당은 계급로선과 계급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당과 혁명의 계급진지를 굳건히 다지며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부하며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진 어머니당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간다.

조선로동당은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당활동의 최고원칙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은 사람과의 사업을 당사업의 기본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은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인민대중의 정신풀을 발동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간다.

조선로동당은 항일유격대시사업방법, 주체의 사업방법을 구현한다.
조선로동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데서 로동계급적원칙, 사회주의원칙을 견지하며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한다.

조선로동당은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하고 선군의 기치밑에 혁명과 건설을 령도한다.
조선로동당은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는 것을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으로 틀어쥐고 나간다.

조선로동당은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며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와 사회주의문화를 발전시켜나간다.

조선로동당은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높여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조직동원한다.

조선로동당은 전 조선의 애국적민주력량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한다.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물러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며 일본군국주의의 제척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로동당은 자주, 평화, 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으로 하여 반제자주력량과의 연대성을 강화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세계의 자주화와 평화를 위하여, 세계사회주의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투쟁한다.

당 중앙위원회 위원

김정일

강능수, 강동윤, 강석주, 강표영, 강양모, 고병현, 김국태, 김경희, 김정은, 김기남, 김기룡
 김락희, 김명국, 김병률, 김병호, 김성덕, 김송철, 김정각, 김정숙, 김정은, 김창섭
 김철만, 김춘삼, 김태봉, 김평해, 김형룡, 김송철, 김희택, 김정양, 김영남, 김영춘
 김영철, 김용진, 김인식, 김원홍, 김범기, 김양두, 김정건, 김양권, 김영남, 김영선
 리만건, 리명수, 리영호, 리무영, 리병삼, 리봉덕, 리춘석, 리태남, 리형근, 리희현
 리영수, 리영호, 리용무, 리용환, 리병철, 리봉설, 리봉죽, 리태만, 리경덕, 리도춘
 박수길, 박승원, 박정순, 박종근, 박재철, 박용국, 박의춘, 박진수, 박영식, 박도봉
 장병규, 장성택, 장경철, 전길수, 전통국, 전진성, 주상성, 주영식, 차승수, 차희정
 정호균, 정희부, 정인국, 조경철, 조명록, 조명태, 주영림, 태종수, 차승수, 채희동
 최영철, 최홍석, 최인홍, 최상인, 최안정, 최희양, 최영형, 최영림, 태종수, 오수용, 한광수
 윤동현, 윤정린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강기섭, 강관주, 강판일, 강민철, 강형봉, 고수일, 김격식, 김계관, 김동은, 김동일, 김동이
 김동일, 김명식, 김병훈, 김봉룡, 김창명, 김천호, 김총결, 김태문, 김희영, 김영숙, 김영재
 김영호, 김용광, 김우호, 김권혁, 김노광, 김영일, 김태림, 김태준, 김태준, 김태준, 김태준
 리국준, 리기수, 리명길, 리민철, 리태섭, 리태철, 리태철, 리태철, 리태철, 리태철
 리창범, 리철순, 리춘일, 리백계, 리백계, 리백계, 리백계, 리백계, 리백계, 리백계, 리백계
 전경선, 전판경, 전판경, 전판경, 전판경, 전판경, 전판경, 전판경, 전판경, 전판경
 지재룡, 차경일, 차경일, 차경일, 차경일, 차경일, 차경일, 차경일, 차경일, 차경일
 최영도, 최용, 최용, 최용, 최용, 최용, 최용, 최용, 최용, 최용
 황병서, 황순희, 황순희, 황순희, 황순희, 황순희, 황순희, 황순희, 황순희, 황순희

강민철, 강민철, 강민철, 강민철, 강민철, 강민철, 강민철, 강민철, 강민철, 강민철
 김태림, 김태림, 김태림, 김태림, 김태림, 김태림, 김태림, 김태림, 김태림, 김태림
 리태철, 리태철, 리태철, 리태철, 리태철, 리태철, 리태철, 리태철, 리태철, 리태철
 전판경, 전판경, 전판경, 전판경, 전판경, 전판경, 전판경, 전판경, 전판경, 전판경
 차경일, 차경일, 차경일, 차경일, 차경일, 차경일, 차경일, 차경일, 차경일, 차경일
 최용, 최용, 최용, 최용, 최용, 최용, 최용, 최용, 최용, 최용

김태림, 김태림, 김태림, 김태림, 김태림, 김태림, 김태림, 김태림, 김태림, 김태림
 리태철, 리태철, 리태철, 리태철, 리태철, 리태철, 리태철, 리태철, 리태철, 리태철
 전판경, 전판경, 전판경, 전판경, 전판경, 전판경, 전판경, 전판경, 전판경, 전판경
 차경일, 차경일, 차경일, 차경일, 차경일, 차경일, 차경일, 차경일, 차경일, 차경일
 최용, 최용, 최용, 최용, 최용, 최용, 최용, 최용, 최용, 최용

김태림, 김태림, 김태림, 김태림, 김태림, 김태림, 김태림, 김태림, 김태림, 김태림
 리태철, 리태철, 리태철, 리태철, 리태철, 리태철, 리태철, 리태철, 리태철, 리태철
 전판경, 전판경, 전판경, 전판경, 전판경, 전판경, 전판경, 전판경, 전판경, 전판경
 차경일, 차경일, 차경일, 차경일, 차경일, 차경일, 차경일, 차경일, 차경일, 차경일
 최용, 최용, 최용, 최용, 최용, 최용, 최용, 최용, 최용, 최용

김태림, 김태림, 김태림, 김태림, 김태림, 김태림, 김태림, 김태림, 김태림, 김태림
 리태철, 리태철, 리태철, 리태철, 리태철, 리태철, 리태철, 리태철, 리태철, 리태철
 전판경, 전판경, 전판경, 전판경, 전판경, 전판경, 전판경, 전판경, 전판경, 전판경
 차경일, 차경일, 차경일, 차경일, 차경일, 차경일, 차경일, 차경일, 차경일, 차경일
 최용, 최용, 최용, 최용, 최용, 최용, 최용, 최용, 최용, 최용

당 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

위원장 김국태
 1부위원장 정명화
 부위원장 리득남
 위원 차관석, 박덕만, 차순길, 김용선

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로동신문》

책임주필 김기룡

당 중앙검사위원회 위원

김창수, 박명순, 최배진, 김철, 심철호
 오룡일, 계영삼, 류현식, 고명희, 방용목
 장정주, 허광욱, 지동식, 정봉석, 최권수

당 중앙검사위원회에서

조선로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제1차전원회의가 9월 28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전원회의에서는 당중앙검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거하였다. 선거결과를 다음과 같다.

위원장 김창수
 부위원장 박명순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김영남동지



주제 17 (1928)년 2월 4일 평양시 증구역에서 출생. 대학졸업후 중앙당학교 교원,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외무성 부상,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부장, 비서, 정무원부총리 겸 외교부장을 거쳐 주제 87 (1998)년 9월부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사업.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최영림동지



주제 19 (1930)년 11월 20일 함경북도 경흥군에서 출생. 주제 39 (1950)년 7월 인민군대 입대. 대학졸업후 경제기사의 자격 받음. 당중앙위원회 지도원, 파장, 부부장, 제1부부장, 부장, 금수산의 사당 서기실 책임서기, 정무원 부총리, 중앙검찰소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평양시당 책임 비서를 거쳐 주제 99 (2010)년 6월부터 내각총리로 사업.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조명록동지



주제 17 (1928)년 7월 12일 함경북도 연사군에서 출생. 주제 39 (1950)년 12월 인민군대 입대. 항공학교 졸업 후 대대장, 편대장, 사단장, 공군사령부 참모장, 사령관, 총정치국장을 거쳐 주제 98 (2009)년 2월부터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사업.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리영호동지



주제 31 (1942)년 10월 5일 강원도 통천군에서 출생. 주제 48 (1959)년 8월 인민군대 입대. 김일성군사종합대학졸업후 사단 참모장, 군단 작전부장, 훈련소 참모장, 총참모부 작전국 부국장, 부총참모장, 훈련소 소장을 거쳐 주제 98 (2009)년 2월부터 총참모장으로 사업.

정치국 위원 김영춘동지



주제 25 (1936)년 3월 4일 량강도 보천군에서 출생. 주제 45 (1956)년 7월 인민군대 입대.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졸업후 군단 작전부 부부장, 총참모부 정찰국 참모장, 국장, 부총참모장 겸 작전국장, 훈련소 소장, 군수동원총국장, 군단사령관, 총참모장,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주제 98 (2009)년 2월부터 인민무력부장으로 사업.

정치국 위원 전병호동지



주제 15 (1926)년 3월 20일 자강도 전천군에서 출생. 주제 34 (1945)년 10월 적위대 입대. 대학졸업후 금속공학 주물기사의 자격 받음. 26호공장 부기사장, 국가계획위원회 부장, 강계뜨락또르공장 기사장,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부장, 제2경제위원회 부위원장, 1부위원장 겸 당책임 비서, 위원장, 당중앙위원회 비서 겸 부장을 거쳐 주제 99 (2010)년 9월부터 내각 정치국 국장, 당책임비서로 사업.

정치국 위원 김국래동지



주제 13 (1924)년 8월 27일 함경북도 김책시에서 출생.
 고급당학교졸업후 당중앙위원회 지도원, 과장, 부부장, 부장, 인민군총정치국 부국장, 사회안전성 정치국장, 김일성고급당학교 교장, 당중앙위원회 부장, 비서를 거쳐 주제 99 (2010)년 9월부터 당중앙위원회 검열위원장으로 사업.

정치국 위원 김기남동지



주제 18 (1929)년 8월 28일 함경남도 금야군에서 출생.
 대학졸업후 경제전문가의 자격 받음.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학부장,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로동신문사 책임주필,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부장, 비서를 거쳐 주제 99 (2010)년 5월부터 당중앙위원회 비서 겸 선전선동부장으로 사업.

정치국 위원 최래복동지



주제 19 (1930)년 12월 1일 남포시 항구구역에서 출생.
 대학졸업후 김책공업대학 교원, 학부장, 학장, 교육위원회 위원장 겸 고등교육부장을 거쳐 주제 75 (1986)년 12월부터 당중앙위원회 비서로 사업.

정치국 위원 양형섭동지



주제 14 (1925)년 10월 1일 함경남도 함흥시 성천강구역에서 출생.
 주제 39 (1950)년 6월 인민군대입대.
 김일성종합대학졸업후 당중앙위원회 지도원, 과장, 중앙당학교 교장, 고등교육상, 당중앙위원회 비서, 사회과학원 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을 거쳐 주제 87 (1998)년 9월부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사업.

정치국 위원 강석주동지



주제 28 (1939)년 8월 29일 평안남도 평원군에서 출생.
 대학졸업후 의무성지도원, 당중앙위원회 지도원, 과장, 외교부 부부장, 의무성 제1부상을 거쳐 주제 99 (2010)년 9월부터 내각부총리로 사업.

정치국 위원 변영립동지



주제 18 (1929)년 9월 20일 황해남도 재령군에서 출생.
 주제 39 (1950)년 9월 인민군대입대.
 김일성종합대학졸업후 물리전문가의 자격 받음.
 김일성종합대학 강과장, 고등교육성 국장, 교육위원회 1부부장, 국가과학원 부원장, 교육상, 국가과학원 원장을 거쳐 주제 98 (2009)년 7월부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으로 사업.

정치국 위원 리용무동지



주제 14 (1925)년 1월 25일 평안남도 평성시에서 출생.
 주제 36 (1947)년 6월 중앙경위대입대.
 제2 중앙정치학교졸업후 총정치국 지도원, 사단 정치부장, 사단장, 총정치국 조직부장, 조직부 국장, 제1부 국장, 총정치국장, 국가검열위원장, 사회안전부 정치국장, 교동위원회 위원장 겸 정치국장을 거쳐 주제 87 (1998)년 9월부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사업.

정치국 위원 주상성동지



주제 22 (1933)년 8월 1일 강원도 문천시에서 출생.
 주제 40 (1951)년 6월 인민군대입대.
 김일성군사대학졸업후 군단 작전상참모, 려단장, 사단장, 지구사령부 참모장, 군단사령관, 총참모부 검열관을 거쳐 주제 93 (2004)년 7월부터 인민보안부장으로 사업.

정치국 위원 홍석형동지



주제 25 (1936)년 10월 1일 서울시에서 출생.
 대학졸업후 금속공학기사의 자격 받음.
 성진제강소 기술부기 사장, 금속공업부 제1 부부장, 김책제철련합기업소 기사장, 함북도당 제2비서 겸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당책임비서, 국가계획위원회, 함북도당 책임비서, 당중앙위원회 부장을 거쳐 주제 99 (2010)년 9월부터 당중앙위원회 비서 겸 계획제정 부장으로 사업.

정치국 후보위원 김양건동지



주제 31 (1942)년 4월 24일 평안남도 안주시에서 출생.
 주제 48 (1959)년 8월 인민군대입대.
 김일성종합대학졸업후 프랑스어 및 문학전문가의 자격 받음.
 사로청중앙위원회 지도원, 당중앙위원회 지도원, 과장, 부부장, 부장을 거쳐 주제 99 (2010)년 9월부터 당중앙위원회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으로 사업.

정치국 후보위원 김영일동지



주제 36 (1947)년 3월 17일 평안북도 정주시에서 출생.
 국제관계대학졸업후 당중앙위원회 지도원, 의무성 국장, 부상, 당중앙위원회 부장을 거쳐 주제 99 (2010)년 9월부터 당중앙위원회 비서 겸 국제부장으로 사업.

정치국 후보위원 박도춘동지



주제 33 (1944)년 3월 9일 자강도 랑림군에서 출생.
 주제 49 (1960)년 10월 인민군대입대.
 김일성고급당학교졸업후 평산 당비서, 당중앙위원회 지도원, 부과장, 과장, 도당 비서 겸 부장, 자강도당 책임비서를 거쳐 주제 99 (2010)년 9월부터 당중앙위원회 비서로 사업.

정치국 후보위원 최룡해동지



주제39 (1950)년 1월 15일 황해남도 신천군에서 출생.
주제56 (1967)년 9월 인민군대 입대.
김일성종합대학졸업후 정치경제학전문가의 자격 받음.
사로청 중앙위원회 부부장, 부장, 부위원장,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황북도당 책임비서를 거쳐 주제99 (2010)년 9월부터 당중앙위원회 비서로 사업.

정치국 후보위원 장성택동지



주제35 (1946)년 1월 22일 함경북도 청진시 청암구역에서 출생.
김일성종합대학졸업후 평양시당 지도원, 당중앙위원회 지도원, 부과장, 과장, 부부장, 제1부부장, 부장을 거쳐 주제99 (2010)년 6월부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당중앙위원회 행정부장으로 사업.

정치국 후보위원 주규창동지



주제17 (1928)년 11월 25일 함경남도 함주군에서 출생.
주제39 (1950)년 3월 인민군대 입대.
대학졸업후 기계공학기사의 자격 받음.
국방과학원 부원장, 제1부원장, 원장,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제2경제위원회 위원장, 제2자연과학원 원장,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거쳐 주제99 (2010)년 9월부터 당중앙위원회 기계공업 부장으로 사업.

정치국 후보위원 리래남동지



주제27 (1938)년 3월 26일 평안북도 염주군에서 출생.
평양기계대학졸업후 금속가공기사의 자격 받음.
탄광기계공장 직장장, 당중앙위원회 지도원, 부과장, 과장, 강선재강련합기업소 당책임비서, 남포시행정경제위원장,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당책임비서, 도당책임비서를 거쳐 주제99 (2010)년 6월부터 내각부총리로 사업.

정치국 후보위원 김락희동지



주제22 (1933)년 11월 11일 평안남도 개천시에서 출생.
인민경제대학졸업후 협동농장관리위원장, 군협동농장경영위원장, 도농촌경리위원장,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함남도당 책임비서를 거쳐 주제99 (2010)년 6월부터 내각부총리로 사업.

정치국 후보위원 래종수동지



주제25 (1936)년 3월 20일 함경북도 명간군에서 출생.
주제39 (1950)년 9월 인민군대 입대.
대학졸업후 기계제작기사의 자격 받음.
보통교육성 교학, 당중앙위원회 지도원, 과장, 도당 비서, 기계공장 지배인, 선박공업부장,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당책임비서, 내각부총리, 함남도당 책임비서, 당중앙위원회 부장을 거쳐 주제99 (2010)년 9월부터 당중앙위원회 비서 겸 총무부장으로 사업.

정치국 후보위원 김평해동지



주제30 (1941)년 10월 8일 자강도 전천군에서 출생.
주제49 (1960)년 2월 인민군대 입대.
사범대학졸업후 도당 지도원, 과장, 부부장, 당중앙위원회 지도원, 도당 부장, 조직비서, 평북도당 책임비서를 거쳐 주제99 (2010)년 9월부터 당중앙위원회 비서 겸 간부부장으로 사업.

정치국 후보위원 우동측동지



주제31 (1942)년 8월 8일 평안남도 평원군에서 출생.
김일성종합대학졸업후 철학전문가의 자격 받음.
당중앙위원회 지도원, 부과장, 국가안전보위부 국장, 부부장을 거쳐 주제98 (2009)년 9월부터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으로 사업.

정치국 후보위원 김정각동지



주제30 (1941)년 7월 20일 평안남도 증산군에서 출생.
주제48 (1959)년 8월 인민군대 입대.
김일성군사종합대학졸업후 대대장, 군단 부사령관, 훈련소 참모장, 소장, 인민무력부 부부장을 거쳐 주제96 (2007)년 3월부터 총정치국 제1부국장으로 사업.

정치국 후보위원 박정순동지



주제17 (1928)년 7월 1일 평안남도 평원군에서 출생.
주제39 (1950)년 7월 인민군대 입대.
중앙당학교졸업후 군당 부부장, 도당 지도원, 당중앙위원회 책임지도원, 함남도당 제2비서, 당중앙위원회 과장, 부부장, 평양시당 조직비서,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부장을 거쳐 주제99 (2010)년 9월부터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으로 사업.

정치국 후보위원 김창섭동지



주제35 (1946)년 1월 2일 평안남도 은산군에서 출생.
주제52 (1963)년 7월 인민군대 입대.
김일성고급당학교졸업후 당중앙위원회 지도원, 책임지도원, 부과장,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 정치국 부국장을 거쳐 주제98 (2009)년 8월부터 국가안전보위부 정치국장으로 사업.

정치국 후보위원 문경덕동지



주제46 (1957)년 10월 12일 평양시 대성구역에서 출생.
주제62 (1973)년 10월 인민군대 입대.
김일성종합대학졸업후 정치경제학전문가의 자격 받음.
평양시당 지도원, 사로청중앙위원회 부위원장, 2호지도국장,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평양시당 책임비서를 거쳐 주제99 (2010)년 9월부터 당중앙위원회 비서 겸 평양시당 책임비서로 사업.

